

Tonnarotti, Portopalo di Capo Passero, Sicilia, Italy, 1999

# Men & The Gift

완벽한 사진의 저자 조지아 피오리오



Tonnarotti, Carloforte, San Pietro, Sardegna, Italy, 1999

시인과 사진가는 공통점이 많다. 남다르게 관찰력이 뛰어난 점도 그렇지만 그들은 눈 앞에 보여지는 것을 서술한다기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을 작가의 내적 언어로 표현할 줄 안다. 자아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상 속에서 자신을 끌어낼 때 사진은 비로소 생명을 가지지 않을까. 이탈리아 토리노(Torino) 태생의 조지아 피오리오(Giorgia Fiorio, 1967~)는 누구보다 자신만의 시각을 중요시한다. 18살 때부터 사진을 시작해 여태껏 쉬지 않고 사진을 해온 피오리오는 장기 프로젝트만 해왔다. 사진을 왜 하는가? 흔히들 말하는 쓰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시인이라든지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처럼 그녀는 사진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한다. 무엇에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축복 받은 일이다. 하지만 재능은 오만과 게으름을 부를 수 있다. 피오리오는 재능과 열정, 끈기와 노력, 도전과 직업의식이 결합된 사진가다. 폐쇄된 사회 속의 남자들을 소재로 10년 동안 작업해온 'Men' 프로젝트를 끝내고 이후 8년간은 인간의 신앙과 정신세계에 관한 작업인 'The Gift' 프로젝트를 끝냈다. 피오리오의 사진에는 정확성과 완벽성이 느껴진다. 그의 작업이 활영에서 인화 그리고 책의 배열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을 자신이 조절해서 만든 산물이기도 하지만 사진을 찍을 때 프레임의 어떤 한 부분도 낭비하지 않는다. 90년대 중반 프랑스의 아를르(Arles) 사진축제에서 피오리오의 사진을 처음 접한 돈 맥컬린(Don McCullin, 1935~)은 용감하다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당시 사진은 석 달 동안 러시아의 탄광 지하까지 내려가 광부들을 찍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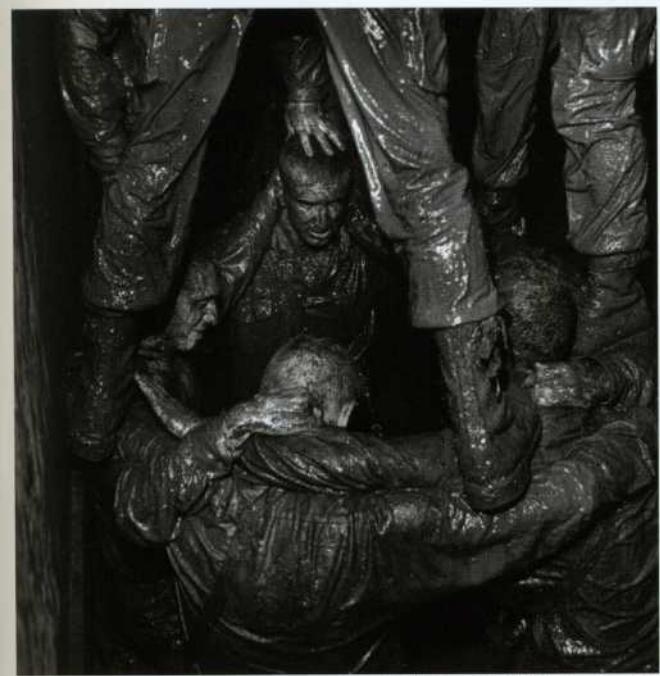
글 | 이민정객원기자(미국), 디자인 | 김윤정기자



Legion étrangère, 2<sup>e</sup> REP, Libreville, Gabon, 1995

18살 때부터 사진을 시작했는데 그 동기는 무엇이었고 사진을 표현수단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나는 이탈리아에서 음반도 내고 활동하던 대중가수였다. 그래서 사진기들이 내 사진을 많이 찍었었다. 사진을 찍하면서 느낀 건 사진가들이 가지는 파워와 컨트롤이었다. 사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진가들이 가지는 힘이란 대단해서 내가 주눅이 들 정도였다. 그러면서 사진가들이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보다 훨씬 재미있다고 느꼈다. 얼마 안 있어 나는 어떤 사진가의 보조로 들어갔다. 그전까지 한 번도 사진을 찍은 적이 없었다. 그는 패션사진기였고 나는 패션사진보다는 사물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시각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그만뒀다. 이듬해 인도로 여행을 떠나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 그러다 어느날 달라이 라마를 만날 기회가 생겼다. 그것은 굉장한 경험이었다. 그가 외국인 6~7명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나에게 참석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다. 달라이 라마는 나에게 무엇을 하고 싶고 직업이 무엇인지 물었다. 나는 사진가가 되고 싶다고 말해버렸다. 지금껏 한 번도 내 입으로 밀해본 적이 없는 말이었다. 달라이 라마는 “그렇다면 당신은 엄청난 도구를 들고 세상에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게 되니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나가 세상을 통찰하여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보여주면 되겠군요”라고 말했고 그 말은 내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나는



Légion étrangère, 3<sup>e</sup> REI, Guyane, 1995



Légion étrangère, 2<sup>e</sup> REP, Corse, France, 1995

문학을 공부했지만 사람에 관심이 많았다. 사진은 세상과 사람을 알아가는 방편으로 좋다고 생각했다. 사진이 아니었으면 하지 못했을 것을 사진을 통해 세상에 접근하고 사물을 보는 눈을 가진다는 걸 느꼈다.

사진가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국제사진센터(ICP)에 입학하고 나서다.

사진을 시작하고 나서 뉴욕의 국제사진센터(ICP)에 대해 듣게 되었다. 처음 석 달은 너무나 힘들었고 고비였다. 당시 나는 막무가내였고 거칠었는데 별 볼일 없는 사진만 찍었었다. 그러다가 메리 엘렌 마크(Mary Ellen Mark, 1940~)와 낸 골딘(Nan Goldin, 1953~)의 수업을 들으면서 변화가 왔다. 얼마 안 있어 정시각의 중형 포맷(6x6)으로 옮겨갔고 학교를 마치기 몇 달 전부터 권투선수 시리즈를 시작해 졸업 후 1년 동안 계속해서 작업을 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진을 시작했지만 전시나 책 출간 또는 잡지사 일 등 외부적인 활동보다는 개인 프로젝트만 해왔다.

자신이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전시회든 책 출간이든 사진이 좋지 않으면 지루하고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다보면 사진가로서 황금기를 놓치게 되고 너무 늦어진다. 사진을 시작한 초기에 시각과 감각, 심도에 대한 이해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전시를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처음부터 나는 개인적인 장기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다. 내가 관심 있는 소재를 내가 원하는 속도로 작업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었다. 당시 돈이 거의 바닥난 상태라 버티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정말 흥분되고 기뻤다. 엄청난 장소에서 중형카메라로 좋은 사진을 많이 찍었다. 매일 매일 사진 찍으러 그곳에 가기 전부터 흥분되어 있었다. 나는 이제껏 나만을 위해서 작업을 해왔고 남을 위해서는 하지 않았다.



Kampfschwimmerkompanie, Eckernförde, Germany,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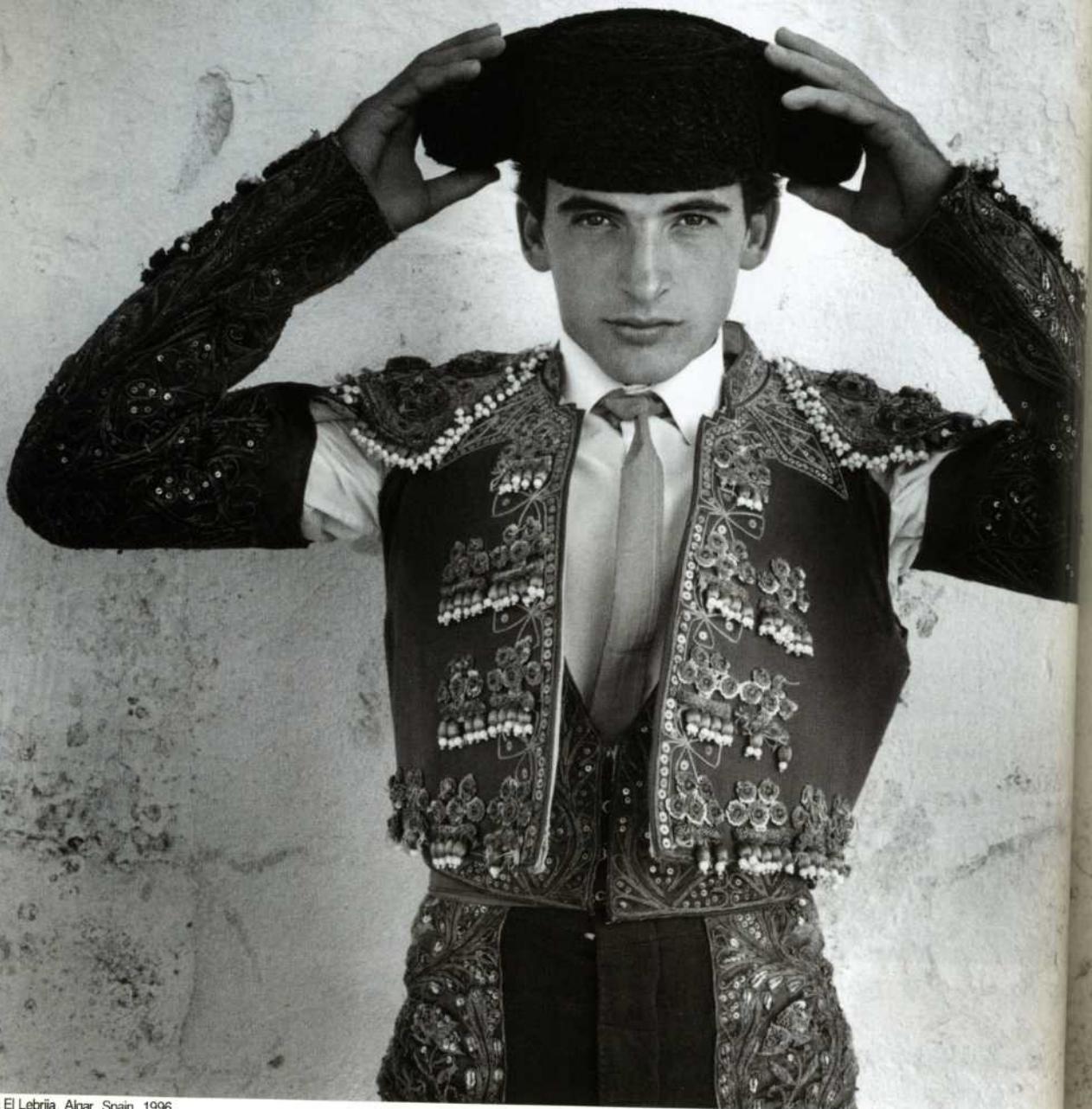
여러 나라의 폐쇄된 사회 속의 남자들을 찍은 'Men' 프로젝트는 권투선수 시리즈부터 시작되었다. 어떤 작업이었는가?

처음 권투선수를 찍기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길어질지는 생각지 못했고 Men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었다. 권투선수 시리즈를 마치고 나서 이탈리아로 갔다. 당시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 처음 생각은 폐쇄된 사회, 육체적인 것, 시대를 초월하는 것에 관련된 장기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였다. 처음에는 이탈리아 군인을 찍었는데 권투처럼 드라마틱 하지는 않았다. 기술적으로는 권투선수 시리즈보다 발전했지만 사진은 차갑게 느껴졌다. 그 이유가 위험에 노출되거나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그래서 다음 소재로 육체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직업을 찾았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러시아의 광부들이었다. 먼저 러시아어를 배운 후 광산에 가서 석 달간 머물렀다. 직업을 마친 후에는 러시아 문학에 심취해 러시아에 더 머물면서 해군, 수감자, 발레 댄서 등을 찍었다. 러시아에서 작업한 사진은 'The Russians'라는 사진집으로 출간되었다.

그 다음은 프랑스의 외인부대(French Foreign Legion)였다. 프랑스 외인부대원들은 남자들만의 폐쇄된 공간으로 위험한 인생을 자청해간 사람들이다. 그 즈음에 사진 관련 상을 하나 받게 됐는데 심사위원 중 한 사람 있었던 장루 시에프(Jeanloup Sieff, 1933~2000)라는 사진가를 만났다. 그에게 내 사진을 보여주며 비평을



Légion étrangère, 13<sup>e</sup> DBLE CME, Djibouti, 1995



David Montoya El Lebrija, Algar, Spain,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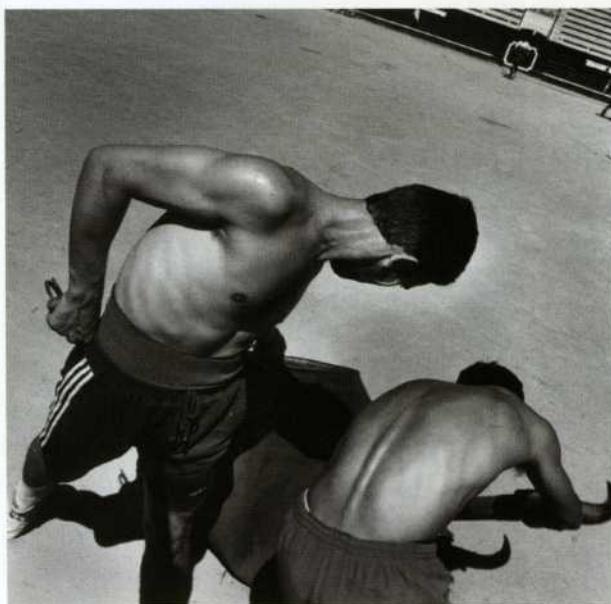
해달라고 했다. 그는 자신도 똑같은 직업을 한다면서 다음에는 무엇을 찍을지 물었다. 나는 투우사(Torero)를 찍을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시에프는 “결국, 이것들은 한 프로젝트이고 ‘데 졸’(Des Hommes, Men, 남자들)이라고 부르면 되겠다”고 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명쾌한 답변이 나왔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폐쇄된 남자들만의 사회이며 흥미로워했던 부분은 위험에 노출되고 무릅쓰는 전형적인 남자들의 모습이었다.

Men 프로젝트는 특정 직업을 가진 남자들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인간의 존엄성과 관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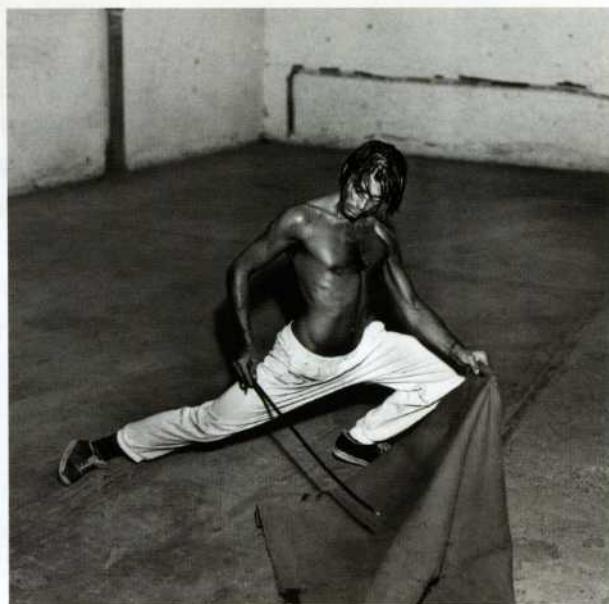
권투선수를 찍을 때부터 존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들은 권투를 통해 정화되며 존엄을 회복한다. 러시아의 광부를 찍을 때는 존엄과 비극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그들은 지하세계에서 목숨을 걸고 일을 했으며 그 대가로 한 달에 만 오천 원 가량의 월급을 받았다. 프랑스의 외인부대는 그보다 더 극적이었다. 110여 개국에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남자들이 모여서 같은 언어를 배우고 제스처를 배우며 훈련을 했다. 1년 후 투우사 직업을 할 때는 또 다른 단어를 발견했다. 바로 연약함이었다. 상처받기 쉬운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때부터 전형적인 남자의 모습에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더는 투우사나 권투선수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투우사 시리즈를 끝냈을 때 소방수와 바다 시리즈로 해군과 어부들을 찍었다. Men 프로젝트의 후반부로 갈수록 소재의 전형적 모습에서 벗어나 인간적으로 접근했다. 전형적 모습이란 사회가 부여한 성질이다. 나는 인간에 관심이 더 있었다.

#### 'The Gife'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Men 프로젝트를 마칠 무렵 개인과 인간으로 중심이 옮겨가면서 서양뿐만이 아닌 좀 더 넓은 세계를 포괄하고 싶었다. 남자뿐 아니라 모든 인간 그리고 사회적인 인간이 아닌 인간 자체로서의 인간을 생각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대면하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했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신앙이었다. 하지만 인



Sanlucar de Barrameda, Spain, 1996



Javier Conde, Malaga, Spain, 1996

간의 믿음을 어떻게 사진으로 찍을 것인지 Men 프로젝트와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해야 했다. Men 프로젝트의 소재는 눈앞에 있지만 The Gift는 비어 있는 것을 찍는 것이었다. 내 소재는 눈앞에 있는 신부나 스님이 아니었다. 그들이 구하고 믿는 것과 신비로움이었다. 그건 시각적으로 엄청난 도전이었다. 어떻게 할지는 몰랐지만 정말 하고 싶었다. 내가 완벽하다고 느끼는 정사각(6x6) 포맷을 두 개 붙여놓은 사이즈인 파노라마 포맷(6x12)을 더했다. 사진 속에 그 이전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했고 보다 광범위하고 보편적이고 물리적인 차원과 맞서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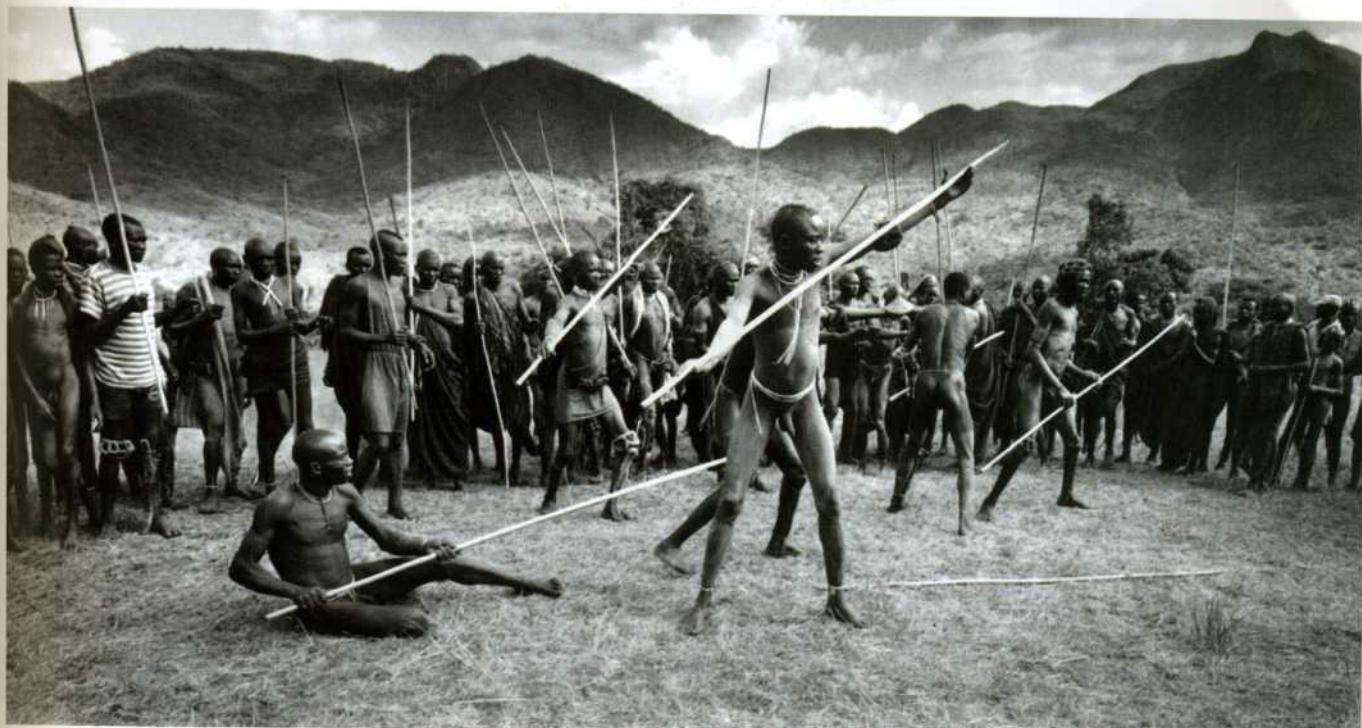
The Gift 프로젝트는 Men 프로젝트보다 감각적이고 신비스러운 느낌이 강하다. 인간의 정신적 측면을 사진으로 담는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인데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8년 동안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 내가 찍은 사진을 보면서 흔적 자체가 미스터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 자체도 흔적이며 미스터리도 흔적이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사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미스터리의 흔적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했다. 촬영 첫 해에는 종교의식이 거행될 때 전반적인 이야기를 찍었다. 원가를 얻었다고 생각지는 않았지만 계속 찍었다. 그러다 순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 그건 내 눈과 머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을 이해하기에 앞서 우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는 소재와의 관계로 진입했다. 그것은 놀랄만한 경험이었다. 사진을 찍고 나서 편집을 할 때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설명하는 사진이거나 미스터리가 없으면 파일 B로 분류했고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사진은 파일 A에 분류해 넣었다.

**The Gift**라는 제목이 무척 상징적이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얼마 지났을 때 The Gift라는 제목이 떠올라 자워지지 않았다. The gift라는 제목이 떠올랐는지는 모르겠다. 처음 한 생각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선물이라는 것이었다. 프로젝트를 한 지 3~4년째가 됐을 때 나는 모든 신앙의 중심은 신체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어서 대분히 모순적이기도 했다.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만을 봐도 신체는 감춰진다. 아주 오래전 동양 철학의 핵심도 이상화와 통제다. 더 오래전으로 올라가면 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갈 수 있다. 신체는 자유를 향한 그림이며 정신적 소유를 표명한다. 이것은 인간 모두가 당면하는 핵심적 문제이다. 다른 관점에서 온 것이라도 같은 문제에 봉착한다. 그것은 통로와도 같으며 어떤 통로인지는 해답을 못 구했었다.

그때 품해서 이탈리아의 단테(Dante Alighieri, c.1265~1321) 전문가이면서 유명한 학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 4년째 신앙에 대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체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건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나는 원가 길을 잃은 느낌이었다. 종교의식의 중심도 신체에 있는데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만약 정신이 그림자라면 신체는 그림자의 그림자란 걸 잊지 마라”고 말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치에 맞는 이야기였다. 미스터리의 흔적, 신체, 정신이 그림자이고 신체는 그림자의 그림자. 여기서 앞으로 더 나아가 보자. 그래서 또 혼자만의 탐구에 나섰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무언기를 알아내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 곳으로 갔다. 처음에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얼마 후에 다 던져버리고 나 자신을 비우기로 했다. 나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배우고 성장하지 못할뿐더러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았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2년 기간에 또 다른 깨달음이 왔다. 모든 종교의식은 통로에 관한 것이었다. 무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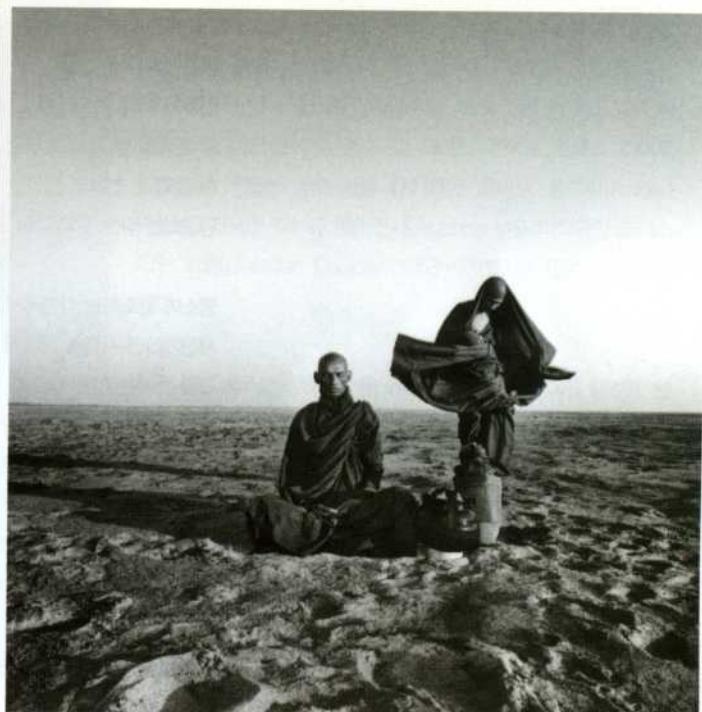


The Surmas, Dongha Stick-Fight Southern Ethiopia, September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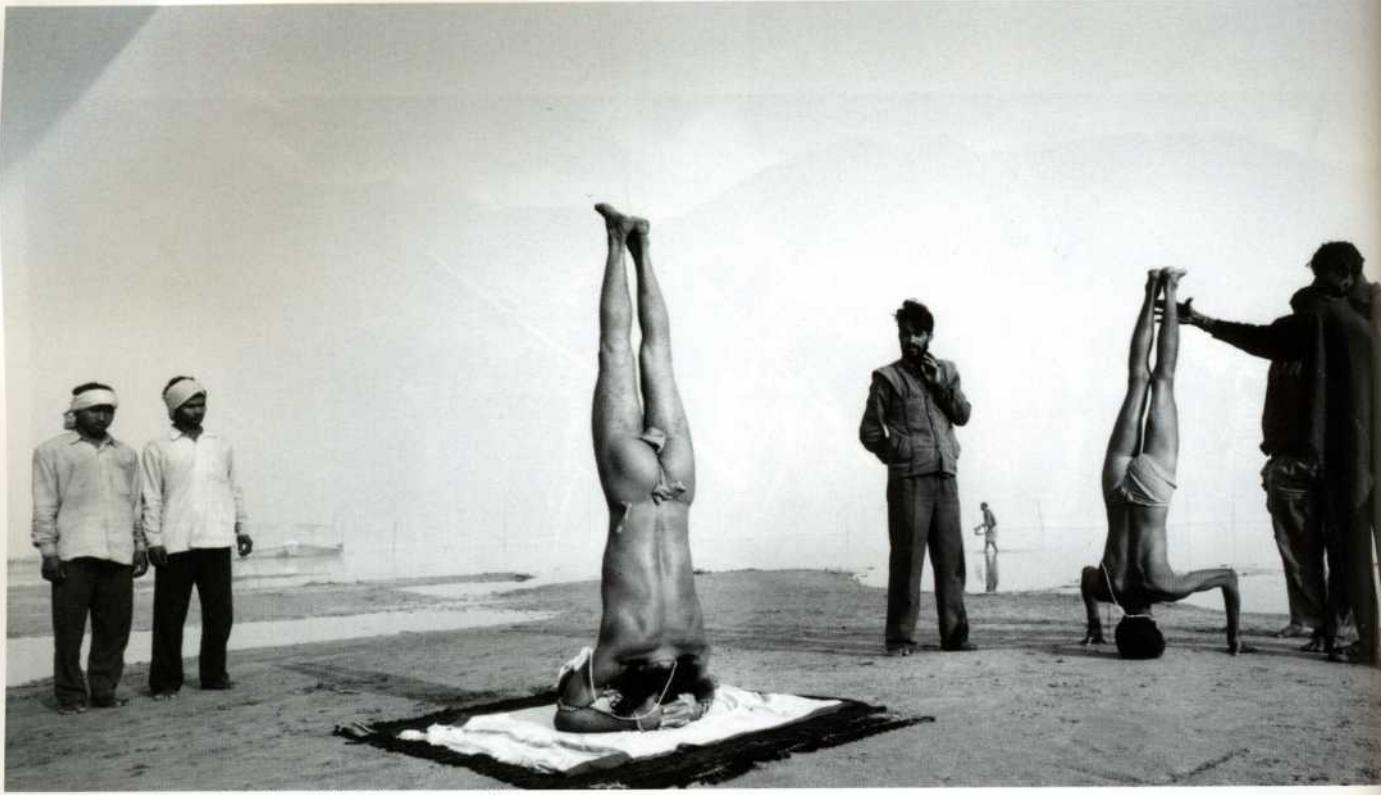
## The Gift



Voodoo celebration, Saut d'Eau, Haiti, July 2000



Meditation on Ayerawadhi River, Bagan, Myanmar, March 2003



Yogi exercises, by the Ganges, Kumb-Mela, Allahabad, India, January 2001

에서 생명으로의 통로, 다시 생명에서 죽음으로의 통로, 그것은 선물이었다. 모든 종교의식은 제물을 바친다. 그것으로 다산과 풍요, 무사한 인생과 사후의 평안을 기원한다. 그것은 주고받는 선물이다. 내가 그동안 작업해온 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다니.

선물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위해 고대어에서 선물이 무엇인지 조사했다. 인간의 역사와 언어의 역사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건 외면적 역사이다. 신앙은 인간 내면의 역사이다. 나는 신앙의 원초적 기원에 관심이 많았다. 신앙의 핵심은 같은데 표현이 다를 뿐이다. 전통과 환경과 역사와 지리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탐구하는 바는 같되 다만 표현만 다를 뿐이다.

평소에 강조하는 사진에서 저자(Author)가 되는 것과 사진가로서의 시각(Vision)에 대해 듣고 싶다. 사진가라면 사물을 다르게 본다. 남들과 다른 자기만의 방법으로 인식하게 되고 표현하게 된다. 보는 것과 시각을 가지는 것은 다르다. 사진가의 시각이란 일반적으로 '보는 것' 보다 훨씬 광범위한 능력을 말한다. 그것은 많은 것을 말한다. 상상력과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이미지에 대한 기억에 관한 것이다. 사진가가 현실의 우연성에 대응해 어떤 한순간을 선택했으면 그 순간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순간을 선택해 의식적으로 카메라 세팅을 정하는 건 사진가의 상상과 대응하는 것이다. 그것의 선물은 상상도 아니며 그 순간도 아니며 사진이 된다. 현실의 우연성과 시각적 대응의 만남은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 현실의 우연성에 가까운지 아니면 사진가의 내면적 시각에 가까운지에 따라 다른 사진이 된다. 하지만 사진에서의 절차는 같다.

현상, 인화와 잡지 레이아웃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조절한다고 들었다. 쉬운 일 같지만 사실상 많은 사진가가 못하고 있거나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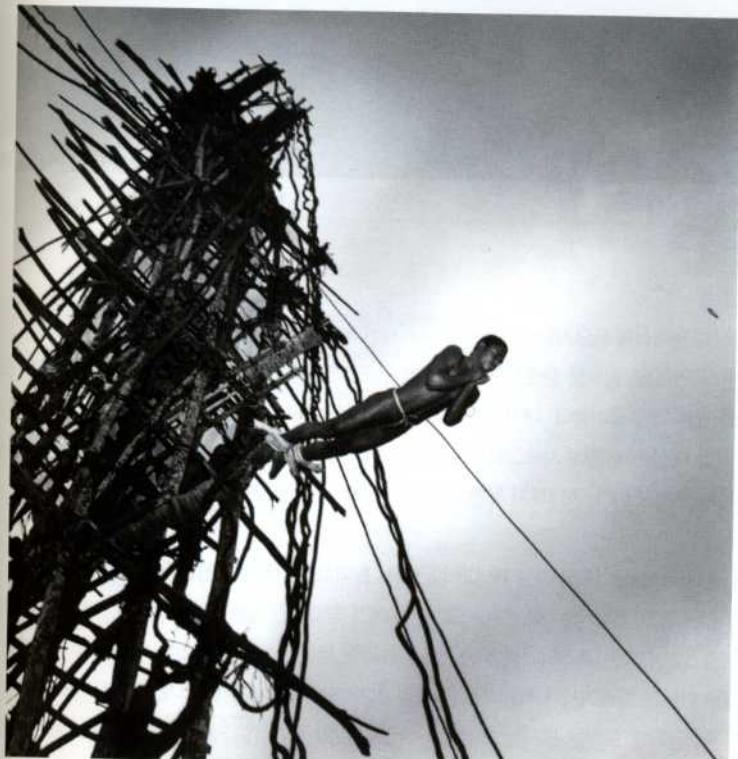
사진가는 저자로서 자신의 이미지의 최종단계까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진을 찍을 때 이미 어떤

이미지가 나올 것이고 어떤 식으로 인화를 할지 상상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것을 해야 한다. 필름의 종류, 그레인의 모습, 현상액, 인화지 등 모든 것에 의도를 가져야 한다. 요즘 같이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세상에서는 더더구나 무작정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들과 다르려면 사진가로서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독특하게 표현하는 것 이외에도 많은 것이 필요하다. 사진의 내용과 최종 모양 또한 중요하다.

문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페인팅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영향받은 사람들이나 멘토는 누구였는가?

문학이 내 작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사물을 보는 시각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상상력과 향수마저 제공한다. 가장 큰 영향은 단테이며 그 외에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 1899~1986),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 1882~1941), 도스토예브스키(Fyodor Dostoevsky, 1821~1881) 등도 내 작업에서 중요하다. 독서는 체계적으로 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19세기 프랑스 문학만을 한동안 읽는다든가 19세기 독일 문학만을 집중해서 읽는다든가 하는 식이다. 러시아 작가 브로스키(Joseph Brodsky, 1940~1996)와 나보코브(Vladimir Nabokov, 1899~1977)도 중요하다.

페인팅은 나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준다. 페인팅을 보면서 사진의 구성과 구도를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Nangol Initiation, Rang Suk Suk village, Pentecost Island, June 2004

멘토라면 ICP에서 만난 메리 엘렌 마크와 낸 골딘이다. 낸 골딘은 좀더 나 자신을 노력하게 하였고 심리적으로 도전하게 만들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영향을 받은 돈 맥클린도 심리적 도전을 하게 만들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메리 엘렌 마크와 장루 시에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외에도 콘택트 프레스 이미지(Contact Press Images) 창시자인 로버트 플레취(Robert Pledge, 1942~)와 뷔 에이전시(Agence Vu) 디렉터인 크리스티안 고줄(Christian Caujolle, 1953~)에게서도 많은 조언을 받았다.

사진 찍는 빠르고 정확한 눈을 위해 펜싱을 했다는 얘길 들었다. 펜싱과 사진과의 연관성이 있다면 무엇인가?

펜싱은 5년 동안 했다. 3개의 큰 사진기를 사용하는데 모두 느렸다. 내가 찍는 상황은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어렵고 무거운 주제가 많다. 나는 상황보다 빠르게 대처하기를 원했다. 펜싱은 사진과 비슷하다. 펜싱은 시각의 인식을 자극하고 움직임에 반응하게 한다. 육체적인 자극에 육체적인 움직임으로 반응하며 조화로움을 연습할 수 있을 뿐더러 시각적인 자극에 재빠르게 반응하는 운동이다. 상대방이 움직이면 내가 통제를 하지만 상대방 역시 나를 통제한다. 사진과 유사한 쌍방 관계를 맺지만 사진이 더 통제하기 쉬운 편이다.



Isabelle, Compiègne, France, 1999

#### 사진에서 정확성과 완벽성을 중요시한다.

나는 굉장히 형식주의자로 형식을 중요시한다. 완벽한 구도, 깨끗한 이미지, 모든 것이 있을 곳에 있고 모든 것이 통제 하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모든 것을 조절하지만 동시에 사진적으로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것은 정말 어렵다. 상황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또한 상황에 영감을 얻지 못할 것에 대비해 미리 시각적으로 상상해보기도 한다. 기대하지 못한 그 무엇이 일어날 때면 무척 흥분된다.

#### 'Reflexions Masterclass' (RM)라는 개념과 접근에서 흥미로운 사진 워크숍을 열고 있다.

여러 장소에서 만난 젊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모아 서로에게 창조적인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시작한 워크숍이다. 프랑스의 유명한 큐레이터겸 비평가인 가브리엘 부렛(Gabriel Bauret, 1951~)과 함께 장기 워크숍 프로그램을 만들어 파리에서 시작했다. 워크숍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1년에 세 차례 모여 이를 동안 이루어지며 과정은 2년이다. 모이는 도시는 그때그때 바뀐다. 나와 가브리엘 외에도 사진계에서 게스트를 초청해온다. 한 주제를 내주면 학생들은 넉 달 동안 작업을 하고 모일 때마다 비평을 한다. 워크숍에 참여하려면



Boris Eifmann Troupe, St. Petersburg State Conservatory, Russia, 1993

먼저 노미네이트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경쟁을 통해 선정된다. 노미네이트는 나와 가브리엘 그리고 초청 게스트와 출연생들이 할 수 있다. 정원은 15명이며 격년으로 각각 10명과 5명을 뽑아 작업한 사진으로 전시도 연다.

#### 그동안 7권의 사진집을 냈다.

7권의 사진집은 모두 Men 프로젝트에서 나왔다. 그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한 시리즈를 끝낼 때마다 한 권씩 책을 냈다. 책 발간까지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었다. The Gift는 8년 동안 작업한 것으로 한 권의 책을 낼 예정이다. 1년 반 동안 편집을 하고 책의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직접 했는데 2009년 2월에 책이 나온다. □MP

## Giorgia Fiorio

**1967** Born in Turin, Italy  
Lives in Venice, Italy

#### | Education |

**1989-90** 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  
**1994** Participant of the first World Press Photo Materclass, Rotterdam, The Netherlands

#### | Selected Grant and Award |

**2006** Nominated finalist H. Nannen Award  
**2005** Amilcare Ponchielli GRIN Award "Best documentary project on our time" from the Italian Editors and Iconographers Association Milan, Italy  
**1999** Yan Geoffroy Award,\* Milan, Italy  
**1997** Named photographer of the year for documentary photography by "American photography". Honourable mention by the "Overseas Press Club of America"(The Olivier Rebbot award)  
**1996** "Marc Flament Award"(by French Defence Ministry) for the best picture of the year  
**1995** Prix Special Jury at the "Grand Prix de la ville de Vevey," Switzerland  
"Ernst Haas Award" at the Maine Photographic Workshops, Rockport, USA

#### | Selected Exhibition |

**2008** Figura Umana, Reportage Festival, Sydney, Australia

[www.giorgiafiorio.com](http://www.giorgiafiorio.com) | All images © Giorgia Fiorio

**2007** Human Figure,Nordic Light International Fotofestival, Kristiansund, Norway. Figure, FotoGrafia, Festival Internazionale di Roma, Rome, Italy  
**2006** Figura Umana, Galleria Grazia Neri, Milan, Italy  
Uomini: una prospettiva retrospettiva, MIAAO, Turin, Italy  
**2005** Italia, doppie visioni, Palazzo Reale, Milan, Italy  
Men, Tokyo Institute of Politecnic, Japan  
**2004** Italia, doppie visioni, Scuderie del Quirinale, Rome, Italy  
Human Figure, Festival de Fotografia, Salamanca, Spain  
**2003** Men, Focus Gallery, London, U.K.  
Human Figure, Saarland Museum, Saarbrucken, Germany  
L'Evidence du Mystere, Cyrille de Gunzburg, Paris, France  
**2002** Human Figure, Festival Transphotographies, Lille, France  
**2001** Human Figure, Italian Cultural Institute in Paris, France  
Exhibition, Cyrille de Gunzburg, Paris, France

#### | Selected Books |

**2004** Piemonte, una definizione fotografica, Agartha edition, Turin  
**2003** Men, Editions Marval, Paris  
Uomini Federico Motta editions, Milano  
Human Figure, Braus edition, Heidelberg  
**1999** Yan Geoffroy Award,\* Milan, Italy  
**2001** Men of the Sea, Editions Marval, Paris  
**2000** American Firemen, Editions Marval, Paris  
**1998** Box in USA(Boxers in New York State), Editions Marval, Paris